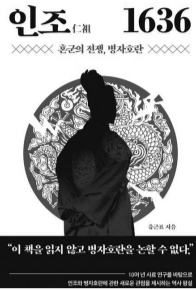


병자호란은 어리석은 혼군이 부른 전쟁

인조 1636

유근표 지음



혼군(昏君)이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뜻한다. 역사 대전환기에는 늘 혼군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선의 3대 혼군을 선조, 인조, 고종으로 보기도 한다. 시대적 격변기에 임금의 오판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수많은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제정세에 어두운데다 무지함과 무능, 아집에 빠져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나라 침략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항전을 이어가지만 결국 항복하고 만다. 사진은 남한산성. <광주일보 자료>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다. 정묘호란 이후 청나라는 경제적 요구와 아울러 명나라를 치는데 협조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하지만 인조는 백성과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권력 팽창에만 몰두한다.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명나라 원공을 갇아야 한다는 대명리에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청군이 진격해오자 남한산성으로 피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 아군은 혹독한 추위와 싸워가며 왕을 위해 혈전을 벌였다. 수많은 병사와 백성

이 죽었고 인조는 거듭되는 패전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이르렀다. 병자호란 후 불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귀국 후 인조의 냉대 속에서 2달 만에 죽음에 이른다. 조선은 서양문물을 수입해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저자는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 오천 년 역사에 자긍심을 느낄진대 이처럼 오욕의 역사일수록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감지한다. 저자는 결국 일련의 상황은 어리석은 인조의 무지한 판단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 죽었고 인조는 거듭되는 패전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이르렀다.

저자는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 오천 년 역사에 자긍심을 느낄진대 이처럼 오욕의 역사일수록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감지한다. 저자는 결국 일련의 상황은 어리석은 인조의 무지한 판단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 죽었고 인조는 거듭되는 패전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이르렀다. 병자호란 후 불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귀국 후 인조의 냉대 속에서 2달 만에 죽음에 이른다. 조선은 서양문물을 수입해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조선의 군주 가운데 반정에 성공한 이가 있다. 바로 인조다. 반정이라 함은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을 말한다. 인조의 반정 주도는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한데다 '폐모살제'의 폐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무리한 궁궐공사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도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참화로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군주였다.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권력욕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병자호란의 참화와 소현세자의 죽음을 파헤친 역사 평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인조 1636'은 당시 조선의 정세와 대응, 실질적인 전쟁 피해자인 백성들의 참상을 근거로 기술한 평설이다. 저자는 역사를 주제로 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근표다. 저자는 그동안 20여 년간 성곽과 병자호란을 연구했으며 서울 성곽 안내와 역사를 강의했다. 이번 책은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1차 사료를 근거로 인조와 병자호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새로 나온 책

▲**香君**: 향기의 소리를 듣는 자=지난 2014년 국제 안데르상을 수상하며 인정을 받은 우에하시 나호코의 최신작(상하). '향기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커뮤니티 케이션'이라는 소재를 판타지에 녹여낸 작품으로 상상력과 생생한 묘사, 흡입력 있는 문체가 인상적이다. 향기로 만물을 읽어내는 신 '향군'과 그가 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오아레 배'를 매개로 우마르 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대륙의 강자가 되는데... <사유의 공감·1만8000원>



▲**햇GPT시대 글쓰기**=햇GPT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담은 책. 아이디어만 있으면 햇GPT를 활용해 어떤 글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방법을 낱알이 풀어낸다. 그러나 막연히 '이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라고 햇GPT에게 말하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 등 모두 6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 맥락 제공, 개방형 질문 등이 있다. <매경출판·1만8000원>

▲**공생의 기술**=세계는 유래가 없는 팬데믹을 비롯해 전쟁과 패권 경쟁 외에도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기술 외에도 기존의 가치들에 회의와 성찰을 하게 하는 정치적, 문화적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함께 잘 사는 공생 세상을 위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자는 우리가 지킬

가치를 재점검하고 나아가 방향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문화·1만5000원>

▲**사춘기엄마의 그림책 수업**=육아의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엄마를 위한 책. 저자는 아이의 사춘기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20권의 그림책을 통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며 겪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아이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고 엄마에게도 두 번째 사춘기인 이 시절을 성장의 시간으로 삼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엘로브북·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무는 다시 등지가 되었다**=책의 주인공은 바위투성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직하게 서 있는 나무. 그러나 갑작스런 나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만다. 한 남자가 톱을 들고 찾아오고 나무는 작게 잘려 언덕 아래로 실려가게 된다. 숲 곳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슬퍼하고 분노하다 문득 나무가 없어도 살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느날 문득 동물들은 꿈에 그리던 향기를 맡게 되는데...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동네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북적대며 살아간다. 사친관 청년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철물점 주인과 부동산 주인은 바둑을 두며 육신각진 다투기도 한다. 어느 날 용감한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면서 동네는 사람벅적해진다. <유리교육·1만2000원>

▲**마천루 빌딩 너거리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다**=높이 솟은 건물이라는 뜻의 마천루 빌딩은 이름과 달리 높이도 5층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초일이**=23년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1학년 담임을 8년간 맡은 현직 교사가 일기를 쓰듯 하루하루를 만화로 기록했다. 아이기 학년이 올라가도 학부모는 늘 조심스럽게 마련이다. 친구들과 잘 지낼까, 선생님에게는 밋밋하지 않을까 등등 걱정을 하게 된다. 소소하지만 시시하지 않은 기승이 따뜻해지는 초등 1학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야기꽃·1만7500원>

시대·사조별 작곡가 100명 스토리...더 재미있는 클래식 역사

연표로 보는 서양 음악사

조현영 지음



클래식과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시중에 쏟아지는 관련 책 중에는 아마도 유명 작곡가나 곡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클래식을 소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할 듯 하다. 아무래도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낯선 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음악사'는 클래식을 즐겨 듣는 이들이나 전공자들도 별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분야다.

피아니스트이자 예술가의 기획 아트앤소울 대표로 '클래식은 처음이라', '오늘의 기본과 매일의 클래식' 등을 펴낸 조현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서양 음악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관련 서적을

써 보자 마음 먹었다.

광주일보에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를 연재한 조현영의 새책 '연표로 보는 서양 음악사'는 바흐 등 익숙한 작곡가와 곡들을 당시 배경이 된 역사의 흐름과 연결해 들려주며 음악이라는 시대의 언어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책은 '음악의 처음: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바로크 음악', '고전음악', '낭만음악', '현대음악' 등 5개 챕터로 나눠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각 챕터의 첫 부분에는 세계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간략한 연표와 함께 각 시대별 클래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을 실었다.

대학 안팎에서 전반적인 클래식의 역사부터 음악 감상, 피아노 문헌, 교수법, 음악철학 등 여러 과목을 강의해온 저자는 서양 음악사에서 꼭 들어야 할 작곡가 100명을 소개했다. 작곡가를 시대별, 사조별로 연관지어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살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악보 전체가 남아있는 최초의 오페라 '에우리디체'를 만든 중세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아코포

페리부터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작곡한 한국의 현대 음악가 진은숙까지 시대별로 음악가를 소개했다. 더불어 대표곡을 바로 들어볼 수 있는 큐알코드를 함께 실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등 이미 많이 들어본 음악가와 덜 알려진 음악가를 골고루 배치했고, 함께 실은 곡 역시 익숙한 곡과 새로운 곡을 적절히 섞어 소개했다.

'브라질풍의 바흐'로 유명한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부스, 폴란드를 대표하는 현대음악가 비톨트 루토스와스키 등 새로운 작곡가를 만날 수 있으며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도 소개한다.

또 줄리아드 음대에서 클래식을 공부한 '신들러 리스트' 'ET'의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와 그의 대표곡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OST도 소개하는 등 폭넓은 작곡가 선정이 눈에 띈다.

현암사가 '연표로 보는 서양미술사'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연표 시리즈다. <현암사·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